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성경의 증언

성경: 요한복음 5장 33-39절

Tag: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5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5:33-39)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때의 성경은 구약성경을 말한다. 구약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5장에는 증언이나 증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증언이나 증거가 있어도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증거나 증언이 효과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믿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휘어진다는 점이다. 즉, 자기 속에 무엇을 믿고 싶다는 욕망이

먼저 있다는 뜻이다. 죄를 탐닉하면 죄를 옹호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성경을 다 믿고 싶어진다.

그래서 내가 **누구 편인지**가 중요하다. 내가 A편이라 생각하면, A가 믿는 것은 나도 믿고 싶어진다. 왜냐면 나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그래서 섯불리 판단 내리고 싶지 않고, 연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나는 그런 수고러움이 싫고, 웬지 나보다 A가 더 똑똑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믿을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을 나도 믿고 싶을 뿐이다.

또, 사람은 모두 죄인이며 죄인인 사람은 아무리 진실이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나와 한배를 타고 있는 A가 믿는 것을 나도 믿는다고 해 주어야 A도 나를 믿어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한 다음에 선과 진리를 선택하여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상에 통용되는 거짓은 자신이 거짓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한다. 또는 그럴듯하게 겉을 포장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듯한 포장을 좋아한다. 거짓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장한다. 이처럼 위장술에 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유익에 거슬러 선과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진리는 포장할 필요가 없다. 포장하는 것은 일종의 약간일지라도 과장이라는 거짓이 포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꺼려진다. 또, 대개 악은 위협과 세력을 거느리기 일수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선에게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서 일진을 형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선과 진리를 인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왜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무릅쓰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물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30년이 넘는 인간으로서의 생활, 십자가의 고통, 멸시와 수모, 심지어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희생은 절대로 사랑이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을 트집 잡았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에게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보통사람 같으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탄성을 지르며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심보에 무슨 중병에 걸렸는지 병을 고치는 기적에는 반응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것에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증언과 증거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미 그들은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로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데는 굳이 요한의 증언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한의 증언은 구원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강조 하셨다.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면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요한의
증언을 진리에 대한 증언이라 하셨다.

-보통 사람들은 진리를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인 명제에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가치관에 대해서 논할 때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인격화 시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진리를
거짓과 대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진리 그 자체로 이해
시키셨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상대를 마귀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거짓으로 규정하셨다. 진리의 영역을 논리적 참과 거짓에 관한 것이
아닌, 악한 의도와 하나님께 대한 대적으로서의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르치셨다.

사실 엄밀하게 따진다면, 과학적인 논리는 진리라기 보다는
논리라고 해야 한다. 뉴턴의 논리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변경되었고, 아인슈타인의 논리는 양자역학에 의해서 변경되었다.
변경되는 진리는 더 이상 진리는 아닌 셈이다.

-마귀의 거짓말이 결코 우주의 원자 하나라도 파괴 시킬수는
없을지라도, 마귀의 그 거짓말을 만약 사람이 믿었을 경우에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 시킬수는 있기 때문에 거짓은 악이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증언으로 그의 말을
믿는 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증언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오히려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이 훨씬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예수님의 치유는 자연적 치유도 아니고, 의료적 치유도 아니고, 오직 창조적 치유다. 원래 사람을 지으신 분의 능력과 권세로 치유하셨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증거임을 강조하셨다.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나 율법주의 신봉자들은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거나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 중 다만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서 그들과 논쟁을 멈추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래도 성경학자들인 바리새인들 중에 진실한 자들, 진리에 목마른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악한 신념이나 이념,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한줄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감에 차서 크게 소리지르고 때를 지어 다니며 허망한 주장을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곧 정의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귀의 주장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 불과하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각종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그 증거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히 그럴만한 증거가 많고 증언도 분명히 있지만, 일부러

고집스럽게 악한 의도로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악하다 주장하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분노하며, 예수를 죽이려 한다. 철저히 마귀의 화신이 된 셈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증언으로 성경을 언급하셨다.

-구약 성경이야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책이다.

-성경은 영생에 관한 전문서적이다. 역사서 이기도 하고, 법전이기도 하고, 율법서 이기도 하고, 교훈집이기도 하고 예언서 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포커스는 영생에 관한 것이다.

-영생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나 율법이나 교훈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핵심은 역시 메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기승전 메시아다. 메시아가 와서 영생을 완성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도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그룹이 바리새인들 아닌가? 그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념에 사로잡히면 온 세상을 이념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지만,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보면 진리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거짓된 세상에서 벗어나 진리의 세계로 거듭나게 되며, 오직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저주를 끊고 승리하라!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